데스크 시각

영아 유기, 모성(母性)과 사회 안전망 사이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갓난 아기를 생매장했다는 뉴스의 끔찍함에 놀라고, 또 그 사건 가해자가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란다. 한 달여 전부터 영아 유기 수사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된 이후, 지금까지도 포털 사이트에 '영아 유기'라는 단어를 치면 연일 여러 건의 기사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세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부가 두 아이를 수년 간격으로 낳아 숨지게 했다는 기사에서부터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채 생활한 부부, 아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엄마,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한 엄마,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후 낳은 지 닷새 된 아기를 살해해 하천에 버린 부부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잔혹 범죄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절망 속 이성 상실한 잔혹한 선택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범죄의 끔찍함이 아니다. 인류를 지탱해 온 기본 요소인 가족, 그 가족의 유대감과 어떤 형태의 정신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믿어온 부모의 사랑, 특히 인간의 가장 위대한 본성으로 추앙받는 어머니의 사랑(母性)이 부정되는 불편함이다.

패륜을 저지른 부모들은 하나같이 경찰에서 아이를 기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미혼이나 동거 남녀들은 출산 사실을 주위에서 알까봐 두려웠다는 게 공통된 답변이었다. 이들에게는 부모의 본성이나 모성보다는 본인의 생존과 생계가 먼저 작동했는가 하면,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 절망 속 이성을 상실한 선택만이 있었다.

이번 영아 유기 사태를 보더라도 사실 부모의 사랑이나 모성은 위대하지만 절대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영아 유기나 살해는 사회 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에서 감춰졌을 뿐 공공연하고 보편적이기까지 한 면이 있었다. 인류 초기나 고대는 물론 중세에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 비율이 세 배 이상인 지역이 많았다고 한다. 인류학자들은 노동력 공급을 위한 인위적인 조절로 분석한다.

대항 능력이 전무한 영아를 부모가 자신의 생존과 상황에 따라 유기하거나 살해하기 시작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한 것일지도 모른다.

영아 유기·살해는 조선왕조실록에만도 수십 여 곳에 걸쳐 기록될 정도로 역사적 증거는 넘쳐난다. 특히 신화가 인간의 본성을 극대화한 메타포라는 점에서, 현대까지도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그리스 신화는 창세 신화편이라고 할 수 있는 첫장부터 영아 살해를 다룬다. 또한 모두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들은 상당수가 영아 유기와 연결돼 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아들로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거세하고 권력을 차지했지만, "너도 나와 똑같이 자식들에게 왕좌를 뺏길 것"이라는 아버지의 예언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먹어 치우고 만다. 절대자가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식을 제거하는 상황의 은유로도 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단어로, 자식의 아버지로부터 지원이 끊기면 아이를 살해하거나 버리는 현상을 '메데이아 효과'라고 한다. 그리스 영웅 '이아손'의 아내인 '메데이아'는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하려고 하자, 자신의 배로 낳은 두 아들을 죽여 버린다. 이후 아테네로 도망가 그곳의 왕인 '아이게우스'와 결혼한다. 혼자 출산했거나 이혼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은 여성이 자식을 유기하고 새로운 남성을 만난 것으로 밝혀진 이번 영아 유기 사건 수사 결과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태어나자마자 숲속에 버려져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 그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과 어머니 헤카베는 임신했을 때, 태내 아이가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된다. 이 때문에 파리스가 태어나자 차마 직접 죽이지 못했던 부부는 이불에 싸서 하인에게 건네며 버리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산짐승 먹이가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맘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신화 중 가장 유명한 얘기의 주인공인 '오이디푸스'도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부모에 의해 산속에 버려진다. 인류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린 생명체를 버렸던 영아 유기의 역사는 이미 고대 시대 신화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사회 현상인 것이다.

영아 유기의 현실은 어찌 보면 신화보다 더 냉혹하다. 우리는 자식을 버리거나 살해한 부모들에게 '반려견도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데, 어찌 부모가…'라고 비난하며 한편으로 가슴 아파한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며, 주변의 보호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출산율이 떨어져 이제는 이민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단 태어난 생명은 어떠한 경우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도와 사회적 보호망이 가동돼야 한다.

은펜칼럼

광주·전남 상생으로 치매 요양 마을 조성을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치매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10.3%, 85세 이상은 33.9%가 치매 환자라고 한다.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으며, 현재의 치매 요양 시설은 갇혀 있다 보니 당사자도 두렵고 가족들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구 건너편 네덜란드에서는 호그벡(Hogeweyk) 치매 마을이 생겨서 놀라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 호그벡 마을은 치매 환자들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곳이다. 요양 시설 내 슈퍼에서 장을 보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소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일상생활을 즐긴다.

또 채소도 가꾸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며, 미술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산책을 한다. 큰 특징은 이곳에 있는 요양복지사, 간호사, 의사 선생님,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하얀 가운을 입지 않고 역할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이들은 슈퍼마켓의 직원이 되고, 카페 점원이 되고, 채소 가꾸는 일꾼이 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되어 연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를 살피며 보살핀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끼리 분류하여 2층으로 이루어진 총 23개 가구에 6~7명씩 모여서 살고 있다. 한 가구에 돌봄 전담 직원이 한 명씩 상주한다. 또한 노래, 악기, 텃밭농원, 운동 클럽, 극장 등 총 36개의 활동 클럽들이 운영되고 있다. 치매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인생 말년의 시간을 보낸다. 호그벡에서는 4500여 평의 부지에 200여 명의 치매 노인들을 250여 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보살핀다.

프랑스 렁드 마을에도 이런 치매 마을이 최근에 생겼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양주시가 호그벡 마을을 지향하는 펜션 형태의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다운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요양 복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치매 요양 마을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꿈꾼다.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마을로 갈 수만 있다면 그리 두렵지 않을 것 같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여 치매 환자를 위해 연기를 하며 돌보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행복을 주고,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경험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 내 농촌동이나 광주 근교 장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등에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주변에 텃밭과 휴양 단지, 숙박 시설 등도 함께 조성한다.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이 부모님을 뵈러 오면서 놀고 갈 수 있도록 텃밭을 가꾸고, 여가를 즐기며, 숙박을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조성한다. 운영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연관 시설과 사업 종사자들,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 인구 증가와 주변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주하는 환자들 역시 주소를 옮겨서 전남 지역 주민이 되어 인구 증가 효과도 있다. 네델란드 호그벡 마을도 처음에는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고 마을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과 취재진들,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가 되니 오히려 좋아한다고 한다. 시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기금을 만들어 정부의 조성에 힘을 보태고,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 입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면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저녁노을이 행복한 마을'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저녁노을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을 골라 위치 선정을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에 대한 꿈을 주는 기획을 한다. 광주와 광주 주변의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장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등 광주 5개 구를 빙 둘러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겨나서 운영된다면 우리는 치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광주·전남 상생의 모델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기 고

경제 논리보다 협치로 지역 소멸 극복해야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전인 예산을 합계 출생률을 높이는 데 썼지만, 이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광주·전남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금전 지원 등 단기 처방에 급급했고, 그 결과 급격한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너무 낮은 출생율,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자본·문화·기업·경제 등 모든 것을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면서 나무의 잔뿌리부터 말라죽듯 충청권, 영남권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고, 괜찮은 일자리도 적은 광주·전남 지역부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광주·전남의 인구를 분석한 결과 196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2499만여 명)의 14.22%(355만여 명)달했던 인구가 1990년 8.40%, 2000년 7.26%, 2010년 6.62%로 매년 줄어들더니 2022년 6.28%(12월 기준 광주 인구는 143만 1000명, 전남 인구는 181만 7000명)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 가면 광주 140만 명, 전남 180만 명이 조만간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남 시·군은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다. 화순군의 월 1만 원 임대 아파트, 강진군의 농촌 빈집 고쳐 임대하기, 아동 1인당 7년 동안 매달 60만 원 양육 수당 지급, 순천시의 최대 100만 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영광군의 6개월간 매월 50만 원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장흥군의 결혼 장려금 500만 원 및 데이트 비용 100만 원 지급 등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광주·전남을 떠나가는 인구의 60% 가량이 20·30대 청년들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수도권보다 급여가 적고, 복지 후생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 있는 고향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는커녕 괜찮은 일자리도 별로 없다. 그나마 입사해서 몇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복지 후생이 나아지지 않고, 기업 문화도 썩 좋지 않으니 수도권살이가 주거, 교통 등 모든 면에서 힘들지만 경력을 조금 쌓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 인구가 지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국가 재정을 투입,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민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귀농·귀어·귀촌하는 청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이 정착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빠른 시일 내 추진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경영자·민간단체·정치권·학계·전문가 등과 공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그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부모 형제, 친구들과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토론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단계별로 치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각 영역에서 경제 논리 보다 협치와 상생의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997년도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기업 살리기 운동, 지역 기업 제품 애용하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자.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지원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비난을 하기 보다 비판하고, 대안들을 제시해 가자. 그리고 더 많이 채용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늘리도록 요구하자.

社 說

'떠나는 섬'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최근 3년 사이 전남 지역 섬 주민 1만여 명이 외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복지·교육 시설 등 기초 인프라 부족이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7만 3794명이었던 도내 섬 인구는 2022년 16만 2932명으로 3년 새 1만 862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섬 2765개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272개다. 한국섬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섬 인구 감소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는 '기초 인프라 부족'을 섬 인구 유출의 첫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유인도 중 의료 시설이 없는 섬은 62.3%, 보육·교육 시설이 없는 섬은 76.3%, 복지 시설이 없는 섬은 43.3%에 달했다.

전남 유인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72곳의 유인도 중 90.4%(246곳)에 병원·의원·한의원이 없었다. 노인·어린이·장애인 복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섬도 249곳(91.5%)에 달했다. 교육 환경도 열악하다. 유치원이 없는 섬은 224곳(82.3%), 고등학교가 없는 섬은 256곳(94.1%)이나 된다.

이렇다 보니 노인들은 병원 때문에 육지로 향하고, 젊은 층은 교육을 위해 섬을 빠져나가고 있다. 과거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다 지금은 4000명대로 준 완도 노화도가 대표적이다.

어제는 제4회 섬의 날이었다. 이제 섬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치중한 나머지 섬 거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은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당장 연륙교 개설이 늘면서 육지와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빨대 효과'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섬 주민의 정주 인프라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크고 작은 섬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정책 수립도 필수적이다.

광주·전남 태풍 비상…만반의 대비 필요하다

갈지자 행보를 보여 온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오전 9시께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오후 전남 남해안 먼 지역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경우 '카눈'의 강풍 반경은 350㎞에 달해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상륙 시 태풍 강도 역시 '강'(중심 최대 풍속 초속 33~44m) 수준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태풍이 전국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단계'와 '주의' 단계를 건너뛴 조치다. 광주시와 전남도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도는 태풍 '카눈' 내습에 철저하게 대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5일 14명의 인명 피해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참사'를 상기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집중 호우 속에서 발생한 지하 차도 참사는 임시 제방을 제대로 쌓지 않았고, 차량 통행을 제때 통제하지 못한 인재로 밝혀졌다. 이러한 참사는 부주의와 안일한 대처가 반복되면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사전 점검과 배수 시설 관리 등 철저한 사전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행정 기관과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無等鼓

잼버리 유감

잼버리(jamboree)는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의 북미 인디언 말 '시바리'(shivaree)가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전음됐다. 스카우트 창시자인 영국의 전쟁 영웅 로버트 베이든파월이 1907년 섬에서 20명의 소년과 함께 야영을 한 것이 시초다. 베이든파월은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네덜란드계 보어인과 영국인 사이에 벌어진 보어 전쟁 당시 소년들에게 정찰 임무를 맡겨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카우트 운동을 시작했다. 스카우트에 '정찰'이란 의미가 담긴 이유다.

베이든파월은 1920년 보이 스카우트 세계 사무국을 설립하고 그해 런던에서 34개국 8000여 명의 스카우트가 참여한 '제1회 세계 잼버리'를 개최했다. 초창기 잼버리는 발표회나 전시회 등 옥내 행사 위주였는데 청소년들이 심신 훈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게 야외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는 25회 새만금 대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63년 그리스 대회 때는 필리핀 보이 스카우트 24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아라비아해에 추락해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05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대회에선 텐트를 치던 스카우트 지도자 네 명이 감전 사고로 숨졌고 2015년 일본 간적지 키라라하마 대회 때는 새만금처럼 40도에 육박하는 고온과 습도로 열사병 환자들이 속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첫 대회인 1991년 고성 잼버리도 날씨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바람에 텐트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이상 저온에 고생하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수교국 11개국과 비회원국 19개국을 포함해 133개국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1986년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고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청소년 104명을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2017년 개최지 결정 이후 6년을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가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대회 조직위는 새만금에서 철수해 서울 등지에서 관광 일정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기 퇴영한 영국 참가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했다. 스카우트의 모토가 '준비하라'(be prepared)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성할 일이다.

/장필수 논설실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